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세상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보다.

고등학교 1학년 김모 양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직전 낙서처럼 끄적인 유언이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06년에 사망한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청소년 937명 가운데 교통사고가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2위가 자살로 무려 233명에 이른다. 자살의 원인으로는 학교 문제가 11.7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모와의 갈등, 우울증, 육체적 질병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리학자들은 자살을 하는 심리적 기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고 있다. 첫째는 자신을 향한 공격성의 결과다. 둘째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이 심하면 자신과 세계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 셋째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문제가 있을 때다. 인간 발달과정에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통합되고 일관된 개념이 형성되지 못하면 표류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넷째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때다. 왕따를 당한다든가 스스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때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자살은 개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이요,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잘 대처해야 한다. 우선 자살의 징후를 알아차려야 한다. 자살을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히

상담심리전문가 ·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청소년 자살과 '존재'의 인정

시도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신이 자살할 거라는 신호를 주변에 보낸다. 소중한 소유물을 남에게 주거나, 일기장이나 편지 등을 태우거나 버리는 행위, 자살 사이트에 빈번히 접속한다거나 부모 몰래 약을 사 모으는 행동 등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행동 외에 죽음에 대한 관심이 평소와 다를 때, 부모에 대한 정상적인 관심이 결여될 때, 자기 능력에 대해 회의를 느껴 절망감을 표출할 때도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약 자살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면 즉시 대처해야 한다. 스스로 삶을 버리고 싶을 정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서적 면역체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삶의 곤경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헤쳐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대처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두번째는 면역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해와 수용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셋째는 지지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춘다.

넷째는 청소년의 관심이 무엇인지 경청하는 것이다.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다.

다섯째는 충고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충고를 강요하게 되면 청소년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찾아가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 된다.

여섯째는 문제를 축소하지 않는 것이다. 듣는 사람에게 별거 아닌 문제도 당사자에게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심각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곱째는 의사소통의 연락망을 계속 열어 놓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관심이다. 자살을 한 다음에야 아이가 무엇을 원했고 무엇 때문에 죽었다며 관심을 가져봤자 이미 때는 늦은 뒤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간섭이 아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의 개체성과 고유성은 무시한 채 부모나 사회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면 그것은 간섭일 뿐이다. 하나의 생명이 자신의 지향성대로 잘 적응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관심이다. 즉 존재에 대한 인정이다. 자신을 이 세상에 존재할 의미가 있는 생명체로 느낄 때 누군가를 사랑할 힘을 갖게 되며, 누군가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덧붙일 것이 불교의 인과론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에게 지은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인과의 법칙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자살이란 하나의 생명을 죽이는 살생 행위임을 알게 하고, 당장 현실의 고통을 피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조상님들, 당신 손녀 아닙니까. 제발 저 애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악연을 풀러주세요.” 김씨는 작전대로 답을 미루기만 했고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다. 딸은 “아빠, 그럼 가서 연락드릴게요. 딱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때는 허락 안하셔도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고생해서 자식을 키운 댓가라니. 김씨는 눈물을 삼켰다.

부처님의 승리

딸은 2-3일마다 국제전화를 했다. 김씨는 전화를 받기 전에 자성 부처님에 관하고 받았다. 그러면 아단치고 화내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 사라졌다. “아, 사랑한다. 아빠는 아직 아무 생각도 안 나.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저 멀리 있는 딸이 무슨 일을 해도 말할 재간도 없었다. 오직, 딸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 아침저녁으로 김씨는 평생 처음으로 지극하게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저 애를 살려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조상님, 부처님.” 3주가 지나자 1주일간 전화가 없었다. 4주가 다 되는 날, 전화가 왔다. 딸은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아빠, 이상하네요. 저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싫어졌어요. 그 날 크게 싸웠어요. 저보고 부모에게 매달려 사는 바보라고 하는데, 그 순간 아빠가 떠오르면서 어찌나 화가 나는지. 아빠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은 울먹이고 있었다.

“이제 보니 아빠엄마만큼 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빠, 죄송해요. 그 사람 이제 안 만날 거예요.”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社說

제18대 국회 정각회에 바란다

제18대 국회 정각회가 7월 23일 아침 조계사에서 출범식과 기념법회를 갖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상생의 정치를 다짐했다. 또 불교계와 관련한 각종 규제와 관제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복잡한 정황 때문에 출범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제18대 국회 정각회의 출범과 임원 구성 등의 행보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18대 국회에는 지난 17대 때와 달리 많은 수의 불자의원들이 입성했다. 본지 조사결과 59명이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종교가 불교라고 밝힌 의원 모두가 정각회에 입회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제18대 정각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자의원 모두를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일 것이다. 또 불교계의 현안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회 정각회는 초당적인 입장에서 불교선행과 불교계 권익 옹호를 위해 합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리당략과 관련한 현안이 발생하면 신행도 권익도 사라지기 일쑤였다. 제18대 정각회는 이런 면에서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길 기대한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과 불자로서의 입장은 별개일 수 있다. 정각회는 그 '별개'의 자리에서 만난 불자의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 정치현안에 휘둘러 정각회가 제 기능을 상실 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초당적인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정치적 행보를 걸을 수 있다면 나라와 불교계와 정각회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다.

대불련의 비상을 위하여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각종 수련회에 참가해 체력과 자신의 내면을 닦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개되고 있고 중고등 학생들의 여름 수련회도 알차게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어린이 청소년이야말로 한국불교 미래다. 여름방학 동안 2일 내지 3일간의 짧은 시간이나마 부처님의 도량에서 신행을 다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희박적인 일이다.

대학생 불자들도 남해안 일대에서 1600년 대회를 열 계획이다. 날로 위축되는 캠퍼스 불심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는 불교계 구성원 전체의 화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한국불교의 현실이기도 하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다소 쓸쓸한 분위기지만 그래도 대학생 불자들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 이번 1600년 대회는 그들이 갖는 꿈에 날개를 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캠퍼스 불심은 대학생들만의 힘으로 되살아날 수 없다. 초중단적인 관심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지 않는 한 캠퍼스에서 성공적인 포교를 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어린이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라면 대학생들은 불교의 '현재'다. 그들을 포교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엄청난 재원과 치밀한 조직력을 앞세워 선교를 펼치고 있는 이웃종교들을 생각하면 답답하기까지 하다. 8월 7일부터 열리는 대불련 1600년 대회는 캠퍼스 불심에 희망을 심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결혼하려고

“아빠, 우리 결혼해도 되지요, 네?” 김씨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니 이럴 수가.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딸이 방학 때 나온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공항에 마중 나갔다. 그런데 딸은 혼자만 아니라 웬 남자가 동행하고 있었다. “아빠, 제 친구 ○○예요. 인사시켜드리려고요.” 딸은 공항 찾이에 들어가 이야기부터 하자는 것이었다. “사실 저희 둘이 약혼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 결혼 허락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순간 김씨는 기절하는 줄 알았다. 결혼이라고? 이제야 3학년인데 졸업도 안하고? 딸리는 가슴을 진정시켰다. 사킨지 몇 달된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 그런데 영 인상이 마음에 안 드는 청년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시켜보기도 무지 인생 살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자네 꿈은 뭐냐?” “꿈같은 건 없습니다.” “아니, 젊은 사람이 꿈도 없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전 매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삽니다. 졸업 후에 어떻게 되겠지요. 계획 같은 건 없어요. 노숙자도 잘 살지 않습니까.” 뭐라고! 옆에서 딸은 “아빠, 얼마나 좋아요. 전 지금까지 너무 지겹게 살았어요. 매일 계획, 공부, 아, 이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요.” 그러더니 “결혼식도 할 거 없대요. 그냥 혼인신고만 하고 살면 된대요.” 김씨는 ‘이 청년은 안 돼! 절대 안 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그래도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참았다. “그래, 일단 집으로 가져”고 말했다.

그 날부터 딸은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했다. 결혼을 해서 같이 살면 공부도 더 잘

“그 사람이 싫어졌어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⑦4 수렁에서 건진 내 딸

되고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천만다행히 딸은 부모님 허락이 있어야 함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것만은 청년의 의견이 달랐다. “청년에 대해 알아볼수록 정신상태가 영망인 사람이었다. 대학도 세 번째 다니고 있고 성적도 바닥인데다 마약복용까지 한 전력이 있었다. 여자관계도 복잡한 것 같았다. 딸은 처음 해보는 연애라 그 모든 것이 멋있어 보인다고 했다. 스님은 김씨 부부에게 “절대로 반대한다거나 나쁜 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발이 생겨 더 부작용이 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시고 따님 속의 부처님이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으세요. 열심히 정진하세요.”

딸 구하기 정진

김씨는 스님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제일 중

요한 것은 딸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부모를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둘은 외국에서 살고 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할 지 어떻게 아는가. 딸은 학교 사정상 한 달 내에 허락을 받고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좋다. 김씨는 잘 안하던 정진을 매일 하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 108배를 하며 참회했다. ‘내가 전생에 저 청년하고 무슨 악연이 있어 딸에게 왔는지.’ 참선을 하며 딸의 마음 속 부처님에게 호소했다. ‘제발, 그 사람은 인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며칠 후 딸에게는 편안한 얼굴로 “우리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떡하니.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했다. 딸은 “아빠, 딸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는데 전 그래도 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한 달 내로 허락해주세요.” 이제 김씨는 큰일이다 싶어 기도할 때 일체 조상님들까지 찾게 되었다. “이 자손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월 오후 2시 ~ 음력 11월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 음력 21일 정오 12시

◇ 개강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 강 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 대학장 : 호암 ◆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개 강 : 2008년 9월 8일

◇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불교예술대학

◆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사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교육

◇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 개 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